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시대를 분별하자 성경: 마태복음 16장 1-4절

Tag: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16:1-4)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회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충분히 풀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이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 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셨다. 왜냐면 이들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1절에 등장하는 ‘시험하여(마가복음에서는 힐난하며 시험하여)’ 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사탄이 했던 것과 같은 의미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해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 보아라 하나님이 과연 너를 천사를 보내서 받아 주시는가 보자 등으로. (악랄하고 더러운 말투요 예절 없는 불량배식 언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계략에 얽혀들어가지 않으셨다. 다만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그 악한 의도를 부끄럽게 하셨다.

이들도 사탄처럼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엘리야처럼 불이 내려오게 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모세처럼 홍해를 갈라 보든지, 사무엘처럼 우리가 치게 해 보든지, 여호수아처럼 해와 달이 멈추도록 해 보든지 등등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그러나 후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경험하였지만,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부활한 것이라고 믿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건을 조작하고 거짓 여론을 퍼뜨리게 된다.

이들은 의도가 이미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 준다고 해도 결코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 자들이다. 이들의 율법주의는 이들의 생각과 행동까지 마비시켰다. 공정한 판단력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율법을 위해서 너무 쉽게 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지어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현상을 보고 악하고 음란하다고 진단하셨다. 음란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율법을 섬기기 때문이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사탄을 섬기는 줄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집단적 착각인 셈이다. 이들의 최후는 결국 마사다전투에서

의 집단자살극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너무 잘 예견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고, 마가복음에서는 깊이 탄식하시면서 대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12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 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막8:12)

-오늘날 어떤 성경학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말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교회에서의 병고침, 예언,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하는 것,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정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음란하다는 표현을 제7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임, 이때의 음란은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었기 때문에 사용된 단어임. 즉 생각이나 율법주의가 우상화 되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켰음.)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는 판단력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다.

너희가 하늘의 구름 색깔을 보고 날씨가 어떻겠다는 것은 잘 분별하지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와 열성당원들의 반란(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하나 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도망가야 한다는 것, 다만 그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닦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일러 주셨다.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을 옹호하는 좌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매우 심각하고 위기에 빠져 있으며, 대기업들이 모든 부를 거머쥐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거짓말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시대를 잘 분별하자.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북한 기습을 위한 특공대를 조직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 아마 남한에서도 특공훈련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왜냐면 전면전을 미리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북한을 위한 임시정부가 구성되어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다. 남한 정부 보다는 미국이 중국과 대치하면서 북한에 신탁통치 하의 임시정부를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급작스러운 통일로 인한 혼란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통일로 인한 혼란이 전쟁 수준이 아닌 어느 정도 에어백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통일로 인한 혼란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이 될 경우 이 세대는 북한 건설의 주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어느 분야에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아마도 임시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땅을 분배해 줄 것이고 지역별로 지자체가 형성되어 남한 투자자들이 그 땅을 사 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대규모의 건설붐이 일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해외 공장을 북한으로 유치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인력을 앞세워 국가 경제력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덩달아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남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이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남한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 당신은 무엇으로, 어떤 기술력으로, 어떤 산업으로, 어떤 지식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의 현금이 은행에 쌓이는 것이 크게 유익을 주지 못할지라도 통일이 되면 그 현금은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 남한은 여러 가지 요건 상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조금 어렵더라도 잘 참고 견디면서 미래를 준비하라!

좀 더 열심히 일하며,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만족하자.

현금의 가치가 낮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금의 가치를 잊지 말고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지탱하게 하자.

-가장 장기적인 투자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고 도덕적이며 인성과 품성이 고귀하게 하자. 결국은 행복의 샘이 여기에 있다.

그로 하여금 성경에 능하게 하자.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하도록 하자.

이 시대를 분별하자.

지금의 가장 좋은 시기이다. 시대를 잘 읽어내고 잘 대처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

악한 자들과 거짓말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들의 악한 말에 마음이나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진실과 진리를 탐구하며 가장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적 사고의 독특성2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5절

Tag:

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2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1:1-5)

성경적 사고의 독특성 (특히 개신교적 가치관에서)

사고의 비교를 통한 독특성

1. 자연과 생리에 지배를 받느냐, 자연과 생리를 지배하느냐?
2.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나로부터 시작하느냐.
3. 유일신인가 다신인가?
4. 거룩한가 혼합주의인가?
5. 율법주의인가 혁신운동인가?

*인도의 사상과 일본의 사상 (독일의 사상)

네 가지 기본적 가치

의무 dharma,
재물 artha,
쾌락 kama,
해탈 mokṣa

dharma란 개인과 사회의 보호와 유지에 필수적인 의무, 정의, 일반적으로 행위의 규칙과 행동지침을 뜻한다.

artha는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직업이며 재물,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다른 물질적 수단을 포괄한다.

재물은 kama 즉 음식, 섹스, 가정, 우정과 같은 쾌락, 일반적으로 향락을 위한 것이다.

mokṣa란 완전한 자유를 뜻한다. 그런데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인도 지혜의 핵심이다. 인도철학은 목샤를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여긴다는 사실이 바로 인도인들은 인간의 영성에 특별한 의의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힌두교(Hinduism)의 의미

현재 인도에 퍼져있는 여러 가지 자기 이외의 종교들과 힌두교를 특별히 구별 짓기 위해서는 인도에서 나서 인도에서 자란 종교만을 가리켜서 힌두교라고 한다.

좁은 뜻에서 힌두교라고 할 때는 Veda경전을 가장 오래되고도 권위있는 경전을 인정하는 인도의 종교, 철학, 문화만이 거기에 포함된다.

2. 힌두교의 특징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힌두교는 자기 신도들의 사상과 행동을

조금도 구속하지 않는다. 힌두교는 인간과 세계의 본질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연구를 무엇보다도 중요시 한다. 따라서 자기 이웃 사람에게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여 주기만 한다면 누구나 마음의 평안과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한 여하한 교리를 믿거나 또 그런 신앙행위를 하거나 관계하지 않는다.

진리탐구와 남의 의견 존중 이것이 힌두교의 좋은 점이다.

유신론, 범신론, 무신론, 절대주의, 상대주의, 일원론, 이원론, 다원론, 우주유전론, 우주절대불변조화불변설, 초종파주의, 자아긍정론, 자아부정론, 물활론, 이상숭배, 귀신숭배, 동물과 사람까지도 제물로 바치는가 하면 해충과 식물까지도 죽이기도 꺾지도않으려는 극단적 박애주의, 극단적 금욕주의와 성적 향락주의, 유심론, 유물론 등 이 모든 것들이 인도에서는 제각기 제멋대로체계 있게 번성하여 왔다.

얼른 보면 외면적으로는 서로 모순되고 융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이 이론과 행동들이 힌두교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힌두교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질은 요가(yoga)라는 수양법에 의하여 발전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다고 그것을 가리킨다.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질 가운데에서 그 어떤 성질을 발전시키려는가에 따라 요가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게 된다.

지혜를 기르는 수양법이 가나 요가(Jnana yoga),

정적인 욕망을 가꾸고 조절하는 수양법이 브하끄띠 요가(bhakti yoga),

오직 정의의 편에서 언제나 이기심을 떠나서 자기의 의무를 완

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행동적으로 훈련시키는 수양법이 까르마요가(karma yoga), 직접 사람의 육체의 조절과 그 완성을 위한 수양법이 하트하요가(hatha yoga), 사람에게 그런 힘이 있기는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힘이 있는 줄을 알지도 못하고 이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잠재세력을 일으켜 이용하기 위한 수양법이 쿤달리니 요가(kundalini yoga), 정신집중으로 삼매에 들게 하는 수양법이 라자 요가(raja yoga)이다.

힌두교의 경전

베다(veda)

리그베다(Rig Veda; 신들에게 바쳐진 찬가 BC.1500) 비, 바람, 우리등 자연계의 현상과 그 위력 그리고 추상적인 관념 등을 신격화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들에 대한 찬송과 기도의 시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10권, 1028개의 시구로 구성되어 있다.

리그베다에 뒤이어 사마 베다(Sama Veda), 야주르베다(Yajur Veda), 아타르바 베다(Atharva Veda)가 성립되었다. 이들 3베다는 리그베다의 내용에다 멜로디를 붙인 것이거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해설을 해 놓은 것이거나 주문 등을 모아 놓은 것이다.

리그베다의 종교는 본질적으로 제사의 종교다. 베다시대의 이상은 대개 현세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베다시대에 인도 아리안은 선주민과 혹은 그들 자신끼리 격렬한 전투를 벌였기 때

문에 그들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승리와 전리품에 기울어져 있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과 많은 수의 소와 아들, 비와 장수였다. 이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을 인간의 친구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신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제물을 받쳤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인간은 신들로부터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곧 주고 받기(give and take)가 제사의 바탕이었다.

<리그베다>에 나타나는 신들의 개성이 희박해지면서 신들 사이의 구별이 불분명해지자, 모든 신은 한 신의 서로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어떤 하나를 찾으려는 생각은 드디어 천지창조에 관한 문제로 전개되었다.

<리그베다>의 철학사상에 우주의 근원을 유일한 것에서 보려고 하는 천지창조의 찬가에 나타난 것이다. 철학적 찬가의 창조관은 일신교적이지만, <리그베다>의 최종기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찬가에는 이와는 달리 범신론적 창조관이 있다. 그 중의 하나는 푸루샤 Purusa찬가에 나타난 창조설이다. 신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이 일체인 푸루샤(原人)를 공물로 하여 제식을 행했을때, 푸루샤의 각 부분으로부터 만물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푸루샤의 입으로부터 브라흐만, 양팔로부터 왕족, 두 무릎으로부터 평민, 두 발로부터 노예, 사고기관으로부터 달, 눈으로부터 태양, 배꼽으로부터 空界, 머리로부터 天界, 두 다리로부터 地界가 생겼다고 한다. 여기서 제식이 창조의 수단이며, 우주의 창조는 초월적인 푸루샤의 자기한정이라는 사상이 처음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찬가는 四姓制度에 근거를 제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후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아타르바 베다>는 주술적 찬가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철학 찬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의해 우주의 최고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리그베다>의 말기에 나타난 철학적 사색의 경향을 이어 받아 일신교적 또는 일원적 경향이 현저하며, 우주의 창조, 전개를 최고신 또는 최고원리에 귀속시키고 있다.

바라문 중심의 사회질서가 거의 확립되고 복잡한 제사의 체계가 수립되었던 기원전 800년을 중심으로 하는 수백년 간에 성립된 브라흐마나 문헌에는 그때까지와는 상이한 세계관의 전개가 엿보인다. 브라흐마나에 있어서는 신들을 대신하여 제식이 세계관의근거가 되었다. 제식은 단순히 수단이라 독자적인 존재로서 신들을 강제하고, 우주의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힘으로 믿어졌다. 신들도 제식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불사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런데 제식에 절대적인 힘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집행하는 바라문들은 이미 신에 봉사하는 경건한 사제자가 아니라, 제식의 힘으로써 신들을 지배하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학식이 있으며 베다에 정통한 바라문은 인간이라고 하는 신이다

브라흐마나 시대에 와서는 직업의 분화가 이루어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브라흐만 계급(Brahman), 군대를 통솔하고 정치를 담당하는 통치계급(Ksatriya), 그 밑에서 농경, 목축, 상업, 수공업등 생산에 종사하는 서민계급(Vaisya), 그리고 위의 3계급에 봉사하는 노예계급(Sudra)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사성(四姓, varna)계급이다. 이 4계급 가운데서 처음의 3계급은 정복민족인 아리아인들이 차지했고, 마지막 계급인 수드라는 원주민들에게 돌아갔다.

브라흐마나시대 다음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파니샤드(Upanisad)시대이다. 우파니샤드란 브라흐마나와 같이 4베다에 소속된 문헌이다. 우파니샤드는 철학서이다. (250여종)

우주의 근원을 브라흐만(Brahman, 梵)이라 보고 개적인 존재의 근원을 아트만(Atman, 我)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일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것이 梵我一如사상이다. 범아일여 상태를 해탈(moksa)이라 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 목표로 되었다. 이 시대에 나타난 二大思想은 梵我一如와 輪廻思想이다.

인생의 기초적인 목적들을 점진적으로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힌두들은 인생을 4단계로 나누었다. 여기에는 수드라(천민)계급의 사람들과 여성들은 제외된다. 1단계는 학생기(學生期)로 베다를 공부하고 다르마의 요구조건을 학습하고, 직업을 위한 기술을 배운다. 2단계는 거주기(家住期)로 성인으로 결혼하고 가족을 돌보며 생업에 종사하며 사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 3단계는 임서기(林棲期)로 사회적인 삶으로부터 은퇴하는 시기이다. 목사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자기통제와 영적힘의 성취를 위해 몰두하는 시기이다. 4단계는 유행기(遊行期)로 세속적인 일들과 욕망을 완전히 포기하는 단계이다. 진정한 힌두교도라면 인생을 이와 같은 4단계로 살아야 한다.

*동양의 사상(중국)

조로아스터교-이슬람주의
힌두이즘과 부디즘
동양/유교, 도교적 사상